

# 양육공동체로서 가정의 생활양식 변화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꿈꾸는 땅 만들기 프로젝트 참가자를 대상으로 -

장경근

(충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박사과정)

## 문 초 록

본 연구는 신앙 양육공동체로서 가정의 생활양식 변화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꿈꾸는 땅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부모의 경험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꿈꾸는 땅 만들기 프로젝트의 효과’를 검증하고, 가정과 교회가 연계된 통전적 양육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은 ‘꿈꾸는 땅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가정 중 최대차이 샘플링 방법을 통해 4가정의 각각 남편과 아내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Strauss(1987)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분석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방적 코딩과 중추적 코딩, 선택적 코딩의 과정을 거쳐 213개의 의미 단위, 79개의 하위범주, 20개의 범주를 구성했다. 프로젝트 참가 전 가정에 대한 인식과 태도, 생활양식에서 「대물림」, 「무지」, 「일방통행식」, 「중도 위기」의 범주가 도출되어 신앙인들의 가정이 신앙 양육공동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 참가를 통한 변화에서는 「하나님의 가정」, 「자기 반성적 성찰」, 「소통과 공감」, 「내가 소중하다」, 「신앙의 주체로서다」, 「함께함이 익숙하다」, 「신앙 양육공동체로 살아가다」의 범주가 도출되어 프로젝트에 참여한 가정들이 신앙 양육공동체로서의 정체성과 생활양식을 확립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가정이 맞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정과 교회의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언을 하였다.

## I. 론1)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다. 그 세 가지 조건은 바로 ‘할아버지의 재력, 아버지의 무관심, 어머니의 정보력’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축소되고 있는 현실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 가정의 교육적 기능에 대해서 부모의 제 1차적인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신 6:4~9). 성경은 가정을 신앙양육공동체로 규정한다. 가정에서 부모는 교사가 되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의 인성을 교육해야 한다(정정숙, 2004: 231). 실제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가정은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는 신앙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였다. 당시 회당과 같은 교육기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가정은 1차적으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상이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가정의 신앙 교육의 역할과 기능을 그들의 가정 생활양식으로 정착시켜 유지해오고 있다.(은준관, 2007: 재인용 신승법 2013: 192).

이러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은 최근 들어 일반 세상 속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각급학교에 학교폭력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밥상머리교육’을 제시하였다(교과부 학부모지원과-218). 이것은 가정의 생활양식의 변화가 가정의 붕괴, 학교폭력, 청소년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밥상머리교육 매뉴얼을 개발한 이현아는 ‘지나친 경쟁과 소비가 강조되는 사회에서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도외시되었던 가정 내 인성교육을 되살려야 한다’고 제안한다(<http://www.asiae.co.kr/news/view.htm?idno=2014021716434027463>).

가정 내 자녀 교육은 기독교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정보화 시대를 거치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부모들은 신앙적 가치보다는 출세와 성공 지향적인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게 되었고,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기독교 가정 내에서의 신앙교육을 소홀히 취급하게 하였다(Charles M Sell. 1988: 32). 신앙과 삶이 분리된 이원론적 태도와 가정 내 부모의 교육적 기능의 약화는 기독교 가정과 주일학교의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박상진, 2009: 72).

박상진은 이러한 가정과 주일학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가정이 연계된 통전적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박상진, 2009: 79). 그간 신앙교육에 있어서 교회와 가정은 서로 분리되는 양상을 보였다. 부모는 전문적인 교회에 자녀를 맡기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부모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부쉬넬(1979: 249)에 의하면, 학령전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의 책임과 신앙적 양육의 효과는 교회의 사역과 비교할 바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 역시 부모에게 신앙 교육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러한 가정과 교회의 분리가 주일학교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었던 것이다. 최근 교과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밥상머리 교육’에서 보는 것처럼 학교 교육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정과 학교가 연계된 통전적 교육 모델을 시도하고 있다. 교회 역시 주일학교의 위기와 각 가정들이 당면하고 있는 신앙전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가정이 연계된 통전적 교육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교회와 가정의 연계된 통전적 신앙양육을 시행하고 있는 North Point Community Church의 가정사역 책임자인 Reggie Joiner(2009: 72)는 일요일 한시간 교회에서만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고안해야 한다고 한다. 장화선(2004: 106)은 교회가 가정과 연계하여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을 세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가정의 통전적 연계를 가능케 하는 가정의 성경적 생활양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와 프로그램들은 기존 가정에서 시행되어오던 가정예배를 재강조하거나 가정 내 하위 체계에 대한 치유적 프로그램, 과정 이수를 중심으로 하는 부모 교육 세미나 형식에 머물러 있다(정현숙, 2012: 21).

1) 생활양식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의, 식, 주와 관련된 생활방법, 그리고 관계 및 행동 방식, 사고방식 등의 생활과 관련된 총체적인 행위를 말한다.(임기추, 강운형, 2004: 6). 본 연구에서는 가정 내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에 관한 생활양식을 의미한다.

부안 온누리 교회에서 시도된 ‘꿈꾸는 땅 만들기 프로젝트(이하 ‘꿈프’)’는 교회와 가정을 연계할 수 있는 통전적 교육 모델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성경은 가정을 하나님의 창조섭리 가운데 제정하신 제도로, 가정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생활, 운명, 양육 공동체로 규정한다. 무엇보다도 부모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명령하고 있다(신 6:4~9). 그러나 기독교 가정들 가운데 가정에 대한 이러한 성경적 정체성을 생활양식으로 실천하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에 대한 책임을 실천하는 가정은 그리 많지 않다. ‘꿈프’는 먼저 자녀의 신앙 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주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 가정의 성경적 생활양식을 정립하기 위해 교회와 가정의 통전적 연계 모형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각 가정들이 신앙양육 공동체로서의 성경적 생활양식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12주 과정의 반복된 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주어진 프로그램들을 단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가정들이 각 가정의 특성에 맞는 생활양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중간 모니터링과 개별면담을 통해 각 가정들 나름대로의 생활양식을 수립하고,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신앙양육공동체로서 가정의 생활양식 변화 프로그램인 ‘꿈프’ 참가자들의 경험을 탐색하고, 그 경험을 질적 분석함으로써 신앙양육 공동체로서 가정의 생활양식 변화 프로그램인 ‘꿈프’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꿈프’에 참여하였으며, 현재 가정에서 ‘꿈프’를 진행하고 있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꿈프’ 참여 경험이 가정에 대한 참가자들의 인식과 태도, 가정의 생활양식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꿈프’ 참가자들의 경험 분석에 근거하여 교회와 가정이 연계된 통전적 양육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신앙양육 공동체로서 가정의 생활양식을 정립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II. 배경

### 1. 기독교 가정 생활양식에 대한 성경적 이해

#### (1) 기독교 가정의 정체성

일반적으로 가정이란 혈연이나 입양, 결혼 등을 통해 결합되어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 공동체를 의미한다. 레비스트로스(Levi Strauss, 1969)는 “가정은 결혼으로 시작되며 부부와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구성되며, 가족 구성원은 법적 유대 및 경제적, 종교적인 권리와 의무, 다양한 심리적 정감으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기독교인에게 가정이란 단순히 남녀 간의 결합이나 제도의 의미를 넘어선다. 기독교는 가정의 출발을 하나님에게 둔다. 가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설되었으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창2:24). 나아가 성경은 가정의 구성원인 자녀를 ‘여호와와 기업’으로, 아버지를 가정의 제사장(출12:3)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정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함을 확증하였다(정정숙, 2004: 77). 이것이 바로 기독교 가정의 정체성이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따라서 가정의 생활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형성되어야 한다.

#### (2) 신앙 양육공동체로서 기독교 가정의 성경적 생활양식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은 전인적이며, 통전적인 신앙이다. 의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이며, 삶의 모든 국면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이러한 신앙의 형성은 인간의 삶의 기본 단위인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며(Charles M Sell, 1988: 98), 신앙 공동체로서 가정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자녀에게 전인적이며, 통전적인 여호와 신앙을 전승하며, 계승시키는 것이다. 구약시대 이러한 신앙의 전승과 계승은 부모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었고, 그 방식은 직접적인 교육과 가르침만이 아닌 부모의 삶과 가정의 생활양식을 통해 이루어졌다(신 6:1~9). 신약시대에 와서도 가정은 성도의 모임과 예배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였으며, 자녀교육에 대한 일차적인 역할은 부모가 담당하였다(행 2:46~47, 딤후 1:5).

성경은 신앙양육 공동체로서 가정의 특성에 대하여 ‘돌봄의 장으로서, 가르침과 배움의 장으로서, 그리고 양육의 내용과 방식으로 삶 양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① 돌봄의 장으로서 가정<sup>2)</sup>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셨다(창 2:18).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심으로 가정을 세우셨다. 그래서 가정 구성원들은 먼저 서로 돕는 존재로 세워져야 한다(엡 5:28~30; 엡 6:4). 서로를 위험과 위기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서로 돕고 섬김으로 서로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에게 안식을 허락하시며, 안식할 권리와 책임을 가정에 부여하셨다. 그리고 안식을 누릴 장소로 가정을 규정하셨다<sup>3)</sup>. 일상 속에서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던 가족 구성원들이 안식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돌봄은 가족을 넘어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피조물로 확장되어야 한다.

### ② 가르침과 배움의 장으로서 가정

하나님은 가정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교실로 말씀하고 있다(지영택, 1999: 19). 그리고 그 가르침을 책임진 사람은 아버지, 가장이다(엡 6:4). 물론 신앙적인 양육의 책임이 부모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양육의 책임은 공동체 전체에게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모를 자녀들의 일차적인 교사로 세우셨다(신 6:5~6; 엡 6:4). 유대인은 지금도 가정에서, 가장이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신승법, 2013: 192). 부모는 단순히 말과 글로써만 가르치는 것은 아니었다. 부모는 자신의 삶을 통해 자녀에게 가르쳤으며, 자녀들은 삶으로 가르침을 체험하며, 그들의 몸과 마음에 가르침을 체득하였다(잠 6:20~22, 딤후 5:4).

### ③ 양육의 내용과 방식으로 삶 양식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이다(신 6:1).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종교적인 생활에 대한 규범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전반에 관한 양식을 포함한다<sup>4)</sup>. 하나님은 가르침의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부모는 구전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한다(신 6:7). 그리고 부모들은 그것을 테필린과 메주자와 같은 것을 통해 상징적으로 가르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일과 각종 절기들과, 출생과 할례와 성인식과 같은 삶의 주기들을 통해 가르치게 하셨다(레 23:1~44, 레 27:1~34, 민 9:14). 이러한 가르침의 방식 역시, 단순히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양식이다.

## 2. 선행 연구 고찰

신앙 양육 공동체로서 가정의 생활양식의 변화 경험에 대한 연구에 앞서 기독교 가정의 생활양식의 변화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기독교 가정의 생활양식의 변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가족 치료적 접근, 자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기독교 가정의 생활양식 전반에 관해 연구는 권오진(2012)과 현용수(2011)의 연구에 불과하다. 그러나 권오

2) 창세기 2장 20절~24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3) 출애굽기 20장 10절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4) 성경은 종교적인 법과 규례와 함께 삶의 양식 전반에 걸친 규례를 하나님의 명령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음식에 관한 규례(레 11:2~44; 신 14:3~21), 의복에 대한 규례(신22:5), 자녀 출산에 대한 규례(레 12장), 병에 대한 규례(레 13~15), 성도덕에 관한 규례(레 18:1~18), 이혼과 재혼에 대한 규례(신 24:1~4), 이웃에 대한 규례(레 19:16~18; 19:32) 등이 있다.

진(2012)의 연구 역시 가정 생활양식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가정 생활양식의 변화를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제한되어 연구되었다. 이와 같이 기독교 가정의 생활양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백하면서 정작 가정에서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기독교인의 현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자녀의 신앙교육과 관련된 기독교 가정의 치료적 접근과 자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독교 가정의 치료적 접근에 대한 연구로는 전요섭(2013), 강경미(2006), 이혜숙, 조혜진(2009), 김미애(2008), 이만식(2006), 송정아(2001)가 있다. 그러나 현재 기독교 가정의 치료적 접근에 관한 연구는 가정의 생활양식과 관련된 총체적이고 통전적인 연구보다는 가족 내 하위 체계에 대한 연구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독교 가정의 자녀 교육의 필요성과 그 방법에 관한 연구로는 이규민(2013), 신승범(2012), 이정관(2012), 김선아(2010), 박상진(2009), 한영진(2004), 박진숙(2004), 장화선(2001, 2004), 이은규(1998) 등이 있다. 이러한 자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의 한계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성경 교육의 필요성과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안하고 있지만, 자녀 교육이 삶으로 이어지는 전인적 교육과 그 방법에 대해서는 개발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는 것이다.

신앙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기독교인은 없다. 그러나 그 방법과 실행, 그리고 삶으로 이어지는 생활속에서의 전인적인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미흡하다. 기독교 가정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생활양식의 총체적인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하위체계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 과연 효율적일까?

현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생활양식 전반에 걸친 변화에 대한 연구와 가정의 생활양식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 III.

#### 1. 연구 현장 및 연구 대상

연구자의 주된 연구현장은 ‘꿈꾸는 땅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전북 부안 온누리 교회이다. 부안 온누리 교회는 1995년 설립된 교회로, 2014년 현재 130여 세대가 등록되어 있는 중소 규모의 교회로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부안 온누리 교회의 주된 특징은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성인 등록 교인의 80%가 30대 후반~40대 후반의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인 등록 교인 중 95%는 전문직이나 제조업,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5% 이하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주일학교 등록 학생 수는 180여명으로, 등록 세대 가운데 90%이상이 세대내 동거 가족 구성원 전체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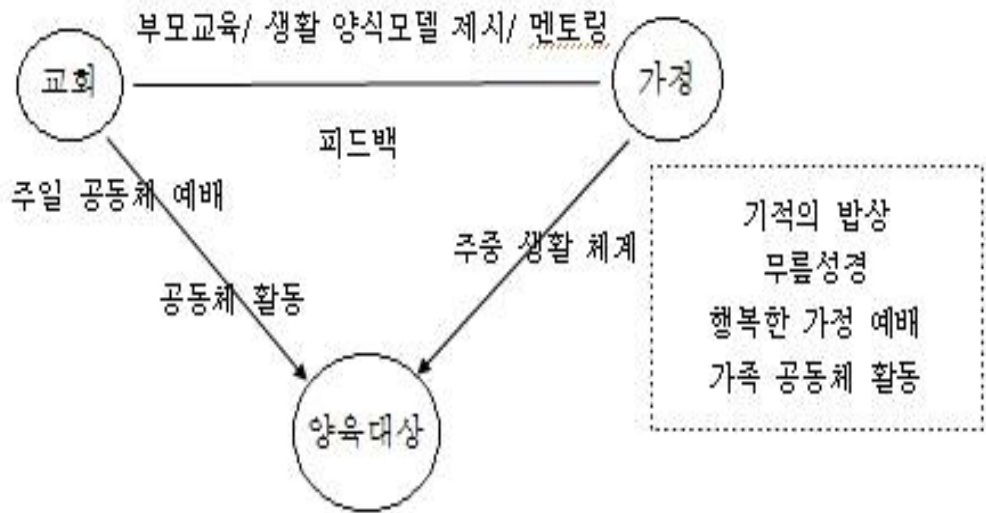
본 연구의 대상은 신앙적 양육 공동체로서 가정 생활양식 변화 프로그램으로서 ‘꿈꾸는 땅’이다. ‘꿈꾸는 땅’은 성경적 관점에서 가정의 생활양식을 정립하기 위한 온누리 교회 자체 개발 프로젝트로, 12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꿈꾸는 땅’은 성경적 가정의 생활양식을 정립하는 활동이기에 12주 과정만으로 활동을 끝마치는 것은 아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꿈꾸는 땅’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였다. 참가를 원하는 가정은 온누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가능하나 가족 단위로 가족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2012년 1차 프로젝트(2012. 5. 6 ~ 7. 29. 12주)에 12가정이 참여하였고, 2차 프로젝트(2012. 10.14~12.30 . 12주)에는 13가정이 참여하였다. 2014년 3차 프로젝트(2014. 2. 9 ~ 4. 13)에는 35가정이 참여하였다. ‘꿈꾸는 땅’ 1차, 2차 프로젝트 참가 가정 중 2014년 4월 현재 ‘꿈꾸는 땅’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정은 각각 5가정, 6가정이다.

## 2. 꿈꾸는 땅 만들기 프로젝트

### (1) 꿈꾸는 땅 만들기 프로젝트(이하 '꿈프')란?

'꿈프'는 성경적 가정의 본래적 기능의 회복을 통한 교회와 가정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신앙 양육 공동체로서 가정의 생활 양식(Life Style)을 형성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부안 온누리 교회에서 개발한 프로젝트이다. '꿈프'의 시작은 2011년 초, 온누리 교회 교육담당 목사 겸 사회 복지사, 청소년 전문 사역자, 초등학교 교사, 주일학교 교사 등이 모여 '꿈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간의 연구를 통해 신앙 양육 공동체로서 성경적 가정의 생활양식에 대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주요 활동 체계(F5)를 수립하였다. '꿈프'의 운영체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Reggie Joiner(2009)의 가정과 교회가 협력하는 패러다임은 그 단초가 되었고, 미국 노스포인트 교회의 싱크 오렌지 모델을 적용하고 있는 세대로 교회(담임목사 양승훈)를 탐방하였다. 'F5'는 신앙 양육 공동체로서 성경적 가정 원리에 근거한 가정의 생활양식으로 '무릎성경 (FB:Family Bible)', '공동체 활동 (FA:Family Activity)', '부모 교육 (FC:Family Coaching)', '기적의 밥상(FD:Family Dinner)', '행복한 가정예배(FW:Family Worship)'를 제안한다. 또한 'F5'는 가정과 교회가 연계한 통진적 교육 모델로서 가정의 본래적 기능으로서 신앙 양육을 제시하며, 교회는 가정의 본래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꿈프'의 운영 체계는 그림1과 같다.

[그림 1] '꿈프'의 운영 체계 : 가정과 교회의 통진적 연결모형



### (2) '꿈프' 주요 활동

'꿈프'의 주요 활동은 가정과 교회에서 진행되는 5가지 활동(F5)이다.

첫 번째 활동은 부모와 자녀가 일대일로 하는 성경공부로 무릎성경 (Family Bible)이라 한다. 무릎성경은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적 가르침을 주는 직접적인 활동으로 성경적인 부모 자녀 관계를 확립하고자 기획되었다. 부모는 매주 1회 자녀들과 일대일의 만남 시간을 정하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본문 해설노트와 질문노트를 활용하여 질문과 답변 방식으로 귀납법적인 성경 공부를 진행한다. 질문의 형태는 정답을 이야기하는 문답식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열린 구조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릎성경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답을 알려주기보다는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한다.

두 번째 활동은 만남과 소통의 공간으로 기적의 밥상 (Family Table)이다. 기적의 밥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식탁 교재를 통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실재를 경험하게 한 것에서 착안하여 개발되었다. 식탁 교재를 통해, 부모와 자녀는 자연스러운 대화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경험하며, 부모와 자녀의 인격적인 만남과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기획하였다. 이러한 밥상에서의 대화는 자녀의 인성함양은 물론 두뇌발달과 학습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BS 스페셜 제작팀, 2010). 교회에서는, 각 가정에서 기적의 밥상을 진행할 수 있는 실천 지침과 기적의 밥상에서 나눌 수 있는 식사 대화 주제를 매주 제공하여 준다.

세 번째 활동은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경험하는 행복한 가정예배 (Family Worship)이다. 행복한 가정예배는 삶으로 예배하는 진인적 예배를 정착시키기 위한 의도로 기획되었다. 각 가정은 매주 1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다. 예배 예식과 예배 순서자는 가족 구성원이 정하고, 역할을 분담한다, 한 달에 한번은 스페셜 데어로 식사와 예배, 공동체 활동을 함께 진행하는데, 식사 메뉴를 정하고, 요리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공동체 활동에 이르기까지 가족 구성원이 가족회의를 통해 모든 결정과 역할을 함께 한다. 교회는 이를 위해 행복한 가정예배 실천지침과 가정예배 실행 예시, 그리고 예배 후 진행할 수 있는 가족 공동체 활동을 제안하여 제공한다.

네 번째 활동은 '꿈프'에 참여하는 전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공통의 경험을 공유하는 공동체 활동 (Family Activity)이다. 공동체 활동은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에서 함께 어울리고, 활동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을 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자녀들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고, 약속과 책임에 대한 강조를 통해 다른 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에 대한 훈련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공동체 활동을 두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는데, 먼저 매 주일 부모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들은 연령대별로 모둠을 형성하여 공동체 활동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전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식탁 만들기, 가족 공동체 활동 등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활동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관점 및 태도 변화를 위한 부모 교육 (Family Coaching)이다. 부모 교육은 자녀에 대한 부모들의 기존 인식과 태도를 점검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성경적 사고를 갖게 하고, '꿈프' 진행에 따른 부담감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프' 활동에 대한 지지를 위해 기획하였다. 매주 주일 저녁 부모들은 디브리핑을 통해 한 주간 가정에서 진행된 '꿈프' 활동에 대해서 나누고, 피드백을 통해 활동에 대한 격려와 지지를 받았다. 이후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주제 강의를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태도의 전환을 도모하였다. 주제 강의의 내용은 표1과 같다.

### (3) '꿈프' 진행 로드맵

'꿈프'를 실행하기 전, 교회에서는 2개월에 걸쳐 매주 주일 오후 예배 가정과 자녀 양육에 대한 설교를 진행하였다.

'꿈프' 안내 공고가 나간 후, '꿈프'의 취지와 목적, '꿈프' 활동에 대한 안내를 위해 잠재적 참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부모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부모 설명회 후 참가 신청 가정은 가정 구성원들이 동의하여 서명한 참가 신청서와 참가 서약서, 자기소개서, 가정 생활양식 체크리스트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참가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한 사전 이해를 위해 '비폭력대화', '참으로 소중하기에 조금씩 놓아주기' 등 2권의 책을 독서토록 하였으며, 자녀들과 함께 SBS 다큐 '밥상머리의 기적'과 EBS 세계 교육 현장을 가다 "이스라엘편"을 시청하고 각각 독서 감상문과 시청소감문 제출하도록 하였다. 참가 신청한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와 부모 각각 면접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F5 활동을 가정의 특성에 맞추어 진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면접과 모니터링 결과를 중심으로 '꿈프' 집중훈련 참가가정을 선정하였으며, 12주간의 '꿈프' 활동을 진행하였다. 12주 과정 중, 4~8주 사이에 참가 전 가정을 대상으로 '꿈프' 진행활동에 대한 중간 모니터링과 재컨설팅을 진행하여 각 가정에 맞는 생활양식을 정립, 정착하도록 하였다.

〈표 1〉 '꿈프' 1차 12주 일정

주차	Family Worship (행복한 가정예배)	Family Bible (무릎성경)	Family Activity (공동체 활동)	Family Coaching (부모 교육)
1	요 2:1~11	실천하는 마음	여느 놀이1 모둠 나누기	오리엔테이션
2	요 6:3~14	나눔	여느 놀이 2	대화법 - 듣기
3	요 9:1~7	순종	협력놀이 1 신체활동	대화법 - 말하기
4	요 11:32~44	위로	협력놀이 2 신체, 감성활동	남과 여
5	요 13:1~15	서로 섬김	협력놀이 3 신체, 지성활동	도덕성
6	요 13:31~35	서로 사랑	가족 공동체 활동 : 공동체 식탁 만들기	
7	요 19:17~30	친구를 위해 희생	협력놀이 4 신체, 사회성활동	자존감
8	요 21:15~23	실천하는 사랑	대화 놀이 1 : 경청	다중지능
9	시 1:1~6	말씀을 즐거워하는 생활	가족 공동체 활동	
10	시23:1~6	하나님의 보호하심	대화놀이 2 : 자기 표현	사춘기
11	시 33:1~22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	오리엔티어링	미디어
12	시133:1~3	서로 연합하는 생활	닫는놀이	형제

### 3. 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 참여자는 교회에 출석하는 다양한 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도적 표본추출(Purposeful Sampling) 방법 중 최대 차이(변인) 샘플링(Maximum Variation Sampling) 방법을 통해 선정하였다.

〈표 2〉 '꿈프' 1차에 참여한 가정의 형태별, 세대원 수, 교회 출석여부 현황

사례 구분	연령	학력	직업	교회직분	자녀수	결혼기간
A	남편	40	고졸	경찰	2	12
	아내	39	고졸	주부		
B	남편	43	고졸	농업	2	15
	아내	39	고졸	방과후교사		
C	남편	41	대졸	경찰	2	11
	안내	39	대졸	교육공무원		
D	남편	42	고졸	공무원	2	12
	아내	38	고졸	사회복지사		
E	남편	38	대졸	은행원	3	11
	아내	33	고졸	회사원		
F	남편	31	대졸	교사	2	5
	아내	31	대졸	교사		
G	아내	40	고졸	미용사	2	15
H	아내	35	대졸	주부	3	8
I	아내	38	고졸	주부	3	13
J	아내	44	고졸	주부	3	19
K	남편	42	대학원졸	목사	2	12
	아내	40	대졸	주부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본 연구의 잠재적 샘플 대상자들은 다양한 가정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작위로 소수의 샘플을 선정했을 때 제기되는 논리성의 문제를 극복하고, '꿈프' 참여 경험을 통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관통하는 효과 요인을 발견하고자 최대차이 샘플링을 선택하였다(나장함, 2012: 81).

연구자는 의도적 표본추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정했다. 첫째 '꿈프'에 참여하되, 12주 기간 동안 결석 없이 참여한 가정, 둘째 현재까지 가정에서 '꿈프'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가정으로 설정했다.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을 확정한 후에 참여 가정에 대한 다양한 특성과 준거들을 파악한 후에 최대차이(변인) 샘플링(Maximum Variation Sampling) 방법을



통해 6가정을 발굴하였고, 이중 연구에 동의한 4가정 중에서 각각 남편과 아내를 참여자로 선정했다.

〈표 3〉 연구 참여자의 가정의 형태별, 세대원 수, 교회 출석여부별 인원이다.

사례 구분	연령	학력	직업	교회직분	신앙연수	자녀수	결혼기간
1 아내	33	고졸	회사원	집사	15(중도)	3	11
2 남편	31	대졸	교사	집사	20	2	5
3 아내	35	대졸	주부	집사	3	3	8
4 남편	42	고졸	공무원	집사	30(중도)	2	12

#### 4. 자료수집 및 분석

연구자는 2012년 1차 프로젝트부터 ‘꿈프’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여 참여관찰을 진행했다. 연구자는 참가 신청자들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참가 부모와 자녀들과 레포를 형성하였고, 참가자들이 작성한 가정 생활양식 체크리스트를 통해 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였다. 프로젝트 기간 중 4~5주차 기간에는 중간 모니터링을 통해 참가자들이 겪는 느낌과 어려움에 대한 비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였다.

2014년 4월에 현재 지속적으로 ‘꿈프’ 활동을 참여하는 4가정의 부모에게 연구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뒤에 심층면담을 요청하였고, 모두 인터뷰에 응하였다. 심층면담은 5월 한달간 온누리 교회와 가정 등지에서 진행되었으며, 부모들의 동의하에 녹음하여 전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 관찰, 참여관찰, 개별 심층 면담, ‘꿈프’ 참가 신청시 제출한 자기 소개서 및 체크리스트, 가정 모니터링 보고서, 참가 소감문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이렇게 수립된 자료들은 사례연구 방법에 따라 질적으로 분석되었다. 질적 사례 연구 방법으로 접근했던 것은 이 연구가 분명한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가진 체계내의 사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John W Creswell, 2013: 111)

본 연구는 부안 온누리 교회에 출석하며, ‘꿈프’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2014년 현재 ‘꿈프’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참가 부모들의 경험의 통해 ‘꿈프’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수집된 자료는 현상의 내면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휘 주제, 장면 등을 조사하여 각각의 코드를 부여하였으며 Strauss(1987)의 개방적 코딩과 중추적 코딩 선택적 코딩의 과정을 거쳐 각각의 자료들을 범주화 하였다.

## IV. 결과

### 1. ‘꿈프’ 참가 전 가정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생활양식

‘꿈프’를 경험하기 전 가정에 대한 참가자들의 인식과 태도는 부모 중심의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양육스타일을 보이며,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가정 내에서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가정 생활양식을 의도적으로 형성하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가자들은 가정 내에서 가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양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성찰 없이 원 가족으로부터 받은 양육경험과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원 가족으로부터 받은 경험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피려하기는 하였으나 가정의 생활양식에 대한 대안 없는 개입과 변화 동력 없는 시도는 막연한 바램에 그치고 말았다. ‘꿈프’에 참여하기 전 가정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생활양식은 참가자들의 성장과정과 가족환경, 양육자로서의 기질과 양육태도, 가정과 양육을 위한 준비, 신앙적 경험과 배경, 신앙 양육 공동체로서 가정의 생활양식 부재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성장 과정과 가족환경 “대물림”**

참가자들의 성장과정과 가족환경은 가정에 대한 상을 정립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owen에 의하면 ‘원가족의 가족 정서과정은 세대 간에 대를 이어 전수되어 현재의 개인과 가족체계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Michael P. Nichols, 김영애 외 역, 2013: 123). 양육자로서 참가자들이 원가족인 부모로부터 받은 양육스타일은 양육자로서 참가자들의 양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양육 스타일이 원가족으로부터 전수되었음을 인식하면서도 대안적 양육 스타일을 체득하지 못할 경우 부정적 요소들을 그대로 대물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부모의 갈등과 이혼은 참가자들의 가정과 가정형성에 대한 부정적인 상을 갖게 하며 가정의 생활양식을 정립하는데 수동적 자세를 가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인 곤란과 가족갈등은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제 저희 아빠가 어렸을 때 ‘빚자루 가져와!’ 때리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때리지는 않더라고 욕하는 마음이 있는거예요.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큰 소리를 내고 무섭게 하고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내가 어렸을 때 아빠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사례2-3-4)

“그냥 그것, 내가 양육되어진 내 몸에 습득된 양육방식?...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양육방식, 저희 부모님은 저희들 생활에 특별히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친구들이 부모님 이야기를 하면, 아! 재네 아빠는 저런 이야기도 해주시는구나 그런걸 느꼈었는데 우리집은 아! 그런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사례3-2-2).

**(2) 양육에 대한 “무지”와 양육자의 “일방통행식” 양육태도**

연구에 참여한 가정의 부모들은 가정의 생활양식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체계적인 훈련 없이 가정을 형성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를 얻더라도 주변 지인들을 통한 비전문적이고, 교과 학습과 관련된 것들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양육에 대한 정보를 전혀 얻지 못하고 훈련을 받지 못한 부모의 경우 권위적이고 일방통행적인 양육태도는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 더 심하였다. 권위주의적인 부모들은 부모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과 틀을 정해놓고 자녀들의 행동과 태도를 통제하고 평가하려는 경향을 보였으며,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자녀들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부모의 생각과 기준을 주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양육에 대한 무지와 일방통행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엄마의 양육태도가 권위주의적인 경향이 강할수록 상대적으로 아버지는 허용적인 양육태도를 취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엄마의 권위주의적인 양육태도는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하여 자녀들은 강한 불만을 보이거나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형태를 취하였다.

“거의(웃음) 그냥 생각 없이 키워던 것 같아요. 그냥 낳았으니까! 기본적인 이론조차도 없었어요. 어~ 뭐 양육서를 본다거나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생활. 어~부딪히는 생활? (음~) 그러면서도 제가 주도하에 저의 규칙을 강압적으로 먹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사례3-1-1)

“이 아이들한테는 그냥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일방통행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제 주도하에 제 기준점을 다 틀을 맞추어놓고 아! 자! 이제 하자, 아이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주지 않고 제 주도하에만 하다보니까”(사례1-5-5)

“한번은 ○○하고 문자를 주고 받는데 “엄마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엄마는 왜 나한테 그러냐고 엄마도 약속한 거 안 지키기면서 나를 뭐라고 하냐고 약속 안 지킬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나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다고 그런데 왜 엄마는 엄마 방식대로 나를 키우느냐고!”(사례4-11-1)

“내가 애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애기를 로봇을 만들 것인지 자기 인생 스스로 나가게 할 것인지 내가 봤을 때는 당신이 로봇을 만든다. 내가 봐도 당신이 ○○한테 너무 한다”(사례4-11-2)

### (3) 신앙적 경험과 배경 : 중도 위기를 겪다.

주일학교에서 신앙 생활하는 어린이 중에서 그 신앙을 청년, 나아가 결혼 이후 시기까지 중도 탈락하지 않고 이어가는 신앙인들은 그리 많지 않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주일학교의 출석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바로 그러한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대상 가운데 초등학교시절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경우 중도에 신앙생활을 포기했거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한 경우가 상당 하였다. 이러한 연구 참가자들의 경험은 지속적으로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시킬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욕구가 강한 형태로 나타났다.

“고3때까진(웃음~) 꾸준히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좀 많이 이~제 이탈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스무 살 되고 그러면 친구들하고 이탈된 생활을 많이 하면서 좀 멀어졌었는데”(사례1-1-5)

“근데 3학년때부터 교회를 안갔어요. 한~ 고등학교때까지 쉰 것 같아요”(사례4-3-2)

“스스로가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그 면역력, 그게 아이들한테는 꼭 심어주고 심은 소망이 있었거든요.”(사례1-6-3)

### (4) 신앙 양육 공동체로서 가정 생활양식의 부재

그간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 부모가 하는 것은 자녀와 함께 예배에 참석하거나, 주일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다. 연구에 참가한 부모들 역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성경적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가정에서 자녀에게 신앙적으로 가르치거나 양육하는 부모는 거의 없었다. 신앙적 양육에 대한 부모의 의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바쁜 일상과 기존의 생활양식 속에서 지속적으로 신앙적인 양육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부모들은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움을 찾으면서도 직접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였다.

“(‘꿈프’ 하기 전에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그 냥 교회를 같이 갔죠.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프’를 하면서 그것도 알게 되거죠 우리가 서은이한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성경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교육이 전무 했었구나”(사례2-6-1)

“둘째가 태어나기 전까지 한 5년 동안 그런 과정도 있었고, 애기도 안 가졌고 너무 바쁘게 살았고 그러다보니까 ○○이를 신앙적으로 어떻게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안했어요.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만 참석하고 했는데 정말로 그때 상황에는 그게 교회를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 믿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어요.”(사례4-10-1)

“계획에 딱딱 아침에 일어나면 책을 뭐 30분 읽고 그다음에 또 뭘 해야 되고 이런 딱딱 이런 좀 규칙을 정해서 이렇게 양육을 하려고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늘 결심은 하죠! 음 아이들하고 뭐 큐티도 좀 주기적으로 해야되겠다한테 그것을 꾸준히 끌고 가지는 못했어요.”(사례1-4-3)

## 2. '꿈프'를 시작하며 :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열망

연구에 참여한 4가정은 12주 동안, 각 가정에서 1주일에 한번 행복한 가정예배,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일대일로 진행하는 무릎성경, 그리고 매일 아침 또는 저녁 식사 시간에 온가족이 참여하는 기적의 밥상을 진행하였다. 부모들은 매주 일요일 자녀에 대한 이해와 양육에 대한 부모 교육을 받았고, 자녀들은 동일한 시간에 공동체 활동을 진행하였다.

### (1) '꿈프'에 참가한 기대와 동기 : 바로 이것이다.

'꿈프'에 참가한 가정들은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움을 찾고 있었다. 참가자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가정을 유전해주기를 원했고, 신앙적 면역력을 심어주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양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부모로서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였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의 문제, 노인과 청소년의 문제, 서로를 소외시키는 가정의 생활양식의 문제들로 인해 어려워하면서도 참가 부모들은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성경적 가정으로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기를 원했다. 이러한 가정과 부모로서의 소망

과 한계를 경험한 부모들은 지속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던 중 온누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꿈프'에 참가하게 되었다.

“저는 그게 기도 응답이었어요. 그런데 처음 접했을 때는 저는 예. 이게 기도응답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아이들 사역을 저한테 허락하신 게 하나님이니깐! 그럼 아이들도 같이 책임져 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시라”고 그런 부분 많이 하나님께 간구를 했던 것 같아요.”(사례1-5-3)

“이게 우리 가정 가운데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일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보여주셨던 비전을 나한테도 보여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꿈프'의 긍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발견해보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어요.”(사례2-4-2)

“그 전에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시켜야 하는데 구체적인 무슨 시스템이나 그런 것도 없었고, 하고 싶으나 진행되는 나의 힘이 부족했는데 이런 것을 한다고 했을 때 반가웠어요.”(사례3-3-3)

## (2) '꿈프' 실행의 어려움 : 습관과 의지의 충돌

그러나 이러한 부모들의 의지와 결단과는 무관하게 '꿈프'에 참여한 초창기 각 가정들은 '꿈프'에 대한 인식이 가족 구성원간에 제대로 공유되지 못한 점과, 습관화된 기존 양육태도와 생활양식, 그리고 이미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축소된 부모의 교육적 역할의 회복은 쉽지 않았다. 기존 생활양식과 '꿈프' 생활양식의 충돌은 '꿈프' 활동이 정착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무엇보다도 부모의 기존 양육태도, 감정적이고 일방적인 양육태도가 쉽게 변화되지 않았고,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일정과 규칙들로 인해 참가자들은 자책감을 겪기도 하였다. 특히 '꿈프'를 주도하는 양육자의 기질로 갈등이 초래되기도 하였고, 바쁜 직장생활과 가족 행사 등의 외적 요인들로 인해 부모들의 어려움은 가중되었다.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무릎성경이나 그런 것은 익숙지 않다보니까 집중력이라든지 예배도 그렇고 좀 어수선 하죠 분위기가 심했어요, 저희(웃음) 기적의 밥상(웃음), 초창기 때 기억하는데(웃음), 배고픈 것 못 참아요! 다들(웃음). 그래 가지고 처음에 오면(웃음) 얘기가 아니라 밥 먹느냐고 다 바빠요(웃음). 또 저희 신앙은 특히나 말이 없어요(웃음). 그러니까 저만 말을 하는 스타일이에요(웃음).”(사례1-7-1)

“○○아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기 싫어! 막 이런다든지 아멘 하는데 아멘하기를 죽어도 자기는 아멘 안하고 싶다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가정예배 때도 온전히 가정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 노는 것도 아니고 거의 휘방꾼처럼 그런 것들이 심하고 아직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밥 먹을 때도 한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서 밥 먹는 습관이 잘 안되었어요. 계속 돌아다니고 그 당시에만 해도 TV를 틀어놓고 TV를 끄고 앉아서 밥 먹는다는 것을 처음에는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총체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사례2-5-1)

“처음에 할 때에, 일단 처음에 규칙을 정해놓고 시작을 했잖아요. 약속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무한히 노력을 했는데, 버거웠죠! 힘들었죠! 애들도 그 습관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애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것을 해내지 못했다는 자책감 그런 것 때문에 더 힘들었죠! -아 제 성격이 어떤 약속을 정하면 그것을 꼭 해야 한다는..”(사례3-3-4)

## (3) '꿈프' 실행의 어려움을 극복한 요인들 : 부모의 의지와 지속적인 도전

'꿈프' 실행의 어려움은 예견된 일이었다. 왜냐하면 기존 생활양식에 익숙해진 가족 구성원들이 단번의 약속이나 의지만 가지고 새로운 생활양식에 적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꿈프'에 대한 양육자의 강력한 의지와 지속적인 도전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해내었다. 양육자로서 부모들은 자녀들과 감정적 해소와, 자신의 양육방식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꿈프'의 생활양식을 가족 구성원의 특성에 맞는 생활 양식으로 변형, 적용해가면서 '꿈프' 실행의 어려움을 차츰 극복해갔다. 무엇보다도 '꿈프'를 가정에 정착시키기 위한 부모의

강력한 의지는 자녀들과 약속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된 인식과 양육태도에 대한 반성을 가능케 하였고, 이를 통해 각 가정의 특성에 맞는 생활 양식을 정립하고 정착시키는데 원활하게 하였다, 또한 매주 주일 부모교육시간에 자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동체 활동은 자녀들에게 '꿈프'에 대한 흥미를 유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아빠가 이것을 참여하는 동안에는 직장이고 무슨 모임이고 전부 썩 내려놓겠다. 무조건 그 시간에 딱 와서 너희들하고 대화하고 책도 읽고 공부하고 다하겠다고 약속을 정해놓고 했어요. ○○한테 엄마 아빠도 너희들한테 한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사례4-13-2)

“어떻게 보면 제가 아빠로서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었던 그런 남아 있던 아빠한테, 제 아빠한테 배웠던 그러한 부분들을 제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이 옳은 건가 옳지 않은 건가 잘 기준을 세우지 못했을 텐데.. 정말로 '꿈프'를 하면서 내가 만약 부족한 아빠였구나 제 부족함들을 처음에는 여실히 발견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 양육에 대한 얼마나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고 잘못된 양육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꿈프'를 통해서 많이 발견한 것 같아요... 중략... 그래서 계속 저를 채찍질 한거죠. 내 모습을 부단히 훈련하면서 어째든 하나님 앞에서 제 부족한 점들을 발견하려고 노력했고요 보여주고 싶었던 거 같아요”(사례2-4-2)

“교육을 통해서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부모 교육을 통해서 정말 그 전에는 그런 교육조차 듣지 안왔고, 있었어도 제발로 찾아가지 않았지만 알고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배우고나니까 이게 맞다고 알았으니까 반한 행동을 하면 안되겠더라고요 교육이 정말로 많은 도움을 주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사례3-3-2)

### 3. '꿈프'를 통한 변화 : “하나님의 가정”

'꿈프'에 참가한 가정들의 변화는 각 가정들마다 다른 시기,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의 공통점은 참가자들이 스스로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 (1) '꿈프'를 통한 양육자의 인식 변화 : 자기 반성적 성찰

'꿈프'에 참여한 양육자들 가운데 일어난 인식의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양육자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었다. 부모들은 양육자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각과 언어습관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고,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양육태도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다. 양육자 가운데 일어난 두 번째 변화는 양육대상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었다. 그동안 자신의 생각과 목적을 정당화하면 행한 양육으로 인해 자녀들이 받았을 상처를 깨닫게 되었고, 부모들이 발견하지 못한 자녀들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아빠로서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었던 그런 제 아빠한테 배웠던 그러한 부분들을 제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이 옳은 건가 옳지 않은 건가 잘 기준을 세우지 못했을 텐데 '꿈프'가 내가 아버지로서 우리 가정의 바라는 모습에 기준이나 틀 같은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사례2-4-2)

“'꿈프'를 하기 전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그대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꿈프'를 하고 나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 설령 내가 생각이 정답이었어도 아이들한테는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정답일 수도 있겠구나.”(사례3-2-4)

“아이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몰랐던 아이의 면을 보게 되는 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아이는 원래 가지고 있었으나 내가 억압했거나 내가 보지 않으려고 했거나 그런 부분이 내가 플립으로 그 모습들이 드러나게 돼서 보이는거...”(사례 3-8-1)

## (2) '꿈프'를 통한 양육자의 태도 변화 : 소통과 교감

'꿈프'에 참가한 양육자들의 인식의 변화는 태도의 변화와 함께 찾아왔다. 부모들은 일방 통행적인 소통방식에서 자녀들과 상호 교감하는 소통 방식을 경험하면서 자녀들을 인정하고 권유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양육 대상을 존중하고 주체성을 인정하는 소통 방식과 반응 방식을 통해 자녀들로 하여금 자아 존중감을 높여 주었다. 부모들은 그동안 강요하던 소통방식에서 '미안하다, 고맙다'등과 같은 치유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울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권유적인 의사소통을 하였다. 또한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고, 자녀의 선택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자녀 중심적인 양육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끌려다니기보다는 자녀와 함께 세운 원칙과 기준을 통해 자녀의 행동과 선택에 대한 허용과 한계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상호존중적인 자녀 교육을 실천하였다.

“너무나 미안한 게 많았어요. 처음에는 좀 뭐랄까? 아이들에게 “엄마가 이리이러해서 미안해”하면서 치유적인 그런 애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니까 큰애도 막 울고, 막 저도 울고, 특히나 큰애한테 상처를 많이 줬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사례1-7-1)

“말의 변화도 또한 아~ 말의 힘을 더 예전에는 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그냥 뱉어버릴 때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알았으니까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알았고 내가 말로서 죽일 수도 있겠구나!를 알았기 때문에 좀더 조심하게 되고 서로 권유를 하게 되죠. 잘 안되겠지만 우리 예쁜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보자 그런 시도들을 많이 이루어졌죠.”(사례3-3-1)

“우리 아내도 일종의 원칙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아내도 성격이 둥글둥글해졌고 이렇게 이래도 그만 약간 아이들에게 무르게 대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안되는 것에 대한 확고한 원칙이라든지 허용해주는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느낌이 들어요”(사례2-11-1)

## (3) '꿈프'를 통한 양육대상의 변화 1 : 내가 소중하다

'꿈프'에 참여하기 전 자녀들은 교회나 가정에서나 ○○의 자녀였다. 그러나 '꿈프'에 참여하면서 자녀들은 스스로 가정과 자신의 삶에서 주체적인 존재로 서가기 시작하였다. 각 가정에서 매일 진행된 기적의 식탁 가운데 자녀들은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정리하면서, 그리고 가정예배 가운데 순서를 맡아 진행하면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부모님들의 긍정적 반응으로 인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변해갔다. 또한 함께 사는 가정과 삶의 공간에서 규칙의 정립과 준수에 대한 책임감이 형성되었고, 자기 표현력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집안일이라든지 그런 거를, 화요일이라든지 목요일은 번갈아 가면서 하잖아요. 둘이, 그러다보니까 밤에 설거지는 돌아가면서 해요. 아이들어요! 화요일은 둘째가 하나씩 첫째가 해요, 목요일은 둘째가 하고 그러면서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사례1-11-4)

“아이들이 듣는 것만이 아니라 참여하는 뭔가 작은 거 기도를 인도하게 한다든지 찬양을 골라고 한다든지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 하나하나씩 그렇게 주었을 때 아이들이 뭔가를 자기에게 제시했을 때 내가 여기에서 뭔가를 하는구나 하는 성취감, ○○이 같은 경우는 ‘내가 소중하다 내가 소중한 거’, 자존감이 더 높아진 거 같고, ‘내가 할 수 있어’ 자신감도 좋아진 거 같고.”(사례3-4-4)

“'꿈프'를 통해서 나가서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자기 주장도 굉장히 강하고 논리적으로 말도 정말 잘한데요 이제는 집에서 그러는데 굉장히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겼더라고요”(사례4-16-1)

#### (4) '꿈프'를 통한 양육대상의 변화 2 : 신앙의 주체로 서다.

'꿈프'에 참여한 아이들은 매주 주일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 들었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주중에 부모님을 통해 듣게 된다. 또한 주중에 진행되는 가정예배에서 동일한 본문을 또한번 듣고 배우게 된다. 이러한 반복학습은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에 대한 기억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으며, 질문을 통해 진행되는 무릎성경을 통해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삶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계기를 가지게 하였다. 이러한 신앙 교육을 통해 자녀들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지고,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12주간 이후 지속된 '꿈프' 활동으로 인해 참가 가정에 무릎성경과 큐티는 자연스럽게 정착되어갔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 같은 것들을 해줄 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삼일만에 살아나셨어요 서은이(4살)가 나중에 기억하고 있다가 어떤 할아버지 누구 돌아가셨데, 그런데 할아버지 3일만에 다시 살아나? 이런식으로 반문하는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영똥하면서 아 서은이가 이렇게 가정에서 신앙 교육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대견하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사례2-8-1)

“자녀들이 지금은 예배드리는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알죠 예배준비하자! 그러면 식탁정리하고 성경책 갖다 놓고 이제 ○○이가 인도를 해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꿈프'지에 있는 예배 서식을 종이예다 싹 적어요. 자기가 그걸 보면서 자기가 하더라고요 자발적으로 자기가 먼저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하고 싶다고..”(사례3-5-1)

#### (5) '꿈프'를 통해 변화된 생활양식 1 : '꿈프' 삶의 기준이 되다.

'꿈프'는 가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 가정의 주인이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성경적 인식을 인식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생활 양식으로 정착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꿈프'에 참가한 부모들은 자신들의 가정을 성경적 가정 상에 적합한 가정으로 만들기를 원했다. 그리고 '꿈프'에 참여한 이후 그들은 '꿈프'에서 제안하는 F5를 자신들의 가정의 기준과 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들은 '꿈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의 기준점이 되고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었음을 확신하였다.

“'꿈프'는 저에게 어!~ 가정을 그리스도의 가정을 주었죠, 그전에는 그냥 가정이었다면, 나의 가정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시켜 준, 주었다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이들하고 이렇게 상의하고 무언가를 할 때는 꼭 빠지지 않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저의 지식이 기준점이고 이랬다면, 지금은 말씀, 말씀이 기준점이죠”(사례1-12-3)

“지금은 '꿈프'가 우리 가정의 일종의 기준이 되고 틀이 되는 것 같아요. ..중략...'꿈프'가 내가 아버지로서 우리 가정의 바라는 모습에 기준이나 틀 같은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사례2-4-2)

“내가 하고나니까 가정에서부터 신앙이 나와 하나님이었다면, 지금은 내 가정과 하나님, 그런 기분이에요 내 가정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양산할 수 있는”(사례3-7-4)

#### (6) '꿈프'를 통해 변화된 생활양식 2 : 함께하는 것이 익숙하다.

'꿈프'에 참여하기 전 참가자들에게 가정은 그냥 가정이었다. 부부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공동체였다. 거기까지였다. 부모와 자식은 가정 안에 있지만 함께 모이지도 함께 식사하지도, 함께 쉼을 공유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꿈프'에 참가 한 가정들은 매일 기적의 밥상을 통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매주 1회 행복한 가정 예배를 통해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함께 어울리고, 함께 추억을 공유한다. 무릎성경은 신앙을 교육하는 장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일대일 만남을 통해 자녀와 삶을 나누고 소통하는 공간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부모와 자녀들은 소통과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였다.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회복은 자연스럽게 부부관계의 회복으로, 형제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졌다.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관계 회복'의 도움을 가장 많이 봤죠! 아이들과 소통함으로써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또 바뀐 게 잡자리 자기 전에는 동생이랑 같이 자잖아요! 꼭 둘이 같이 축복기도를 해줘요”(사례1-10-1)

“가정이 훨씬 활기도 있고 웃음이 많아졌어요 ○○엄마도 변하고 ○○도 변하고 저희도 변하고, 이제 서로 믿어줄 줄 알았어요 뭐라고 하면 서로 양보를 많이 했어요 ‘꿈프’를 통해서 전에는 일방적으로 잘못했으면 다 니 탓이야 니 때문이야 서로 그랬거든요 지금은 제가 애기 엄마한테 뭐라고 해도 그 자리에서 바로 안 쏘고 서로 한발씩 물러서서 기분이 좋아졌을 때 서로 애기를 꺼내요.또 전에 밥을 먹으면 5분 10분이면 밥을 딱 먹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30분도 있어요 바쁘게 없으니까 애기도 느긋느긋하게 다하고 밥 먹고 치우고 나면 같이 모여 게임도 하고 다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을 해요”(사례4-12-3)

“가장 많이 바뀐 것은 일단 TV를 보지 않는다. 애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다보면 친구들과 TV 이야기하고 어떤거 이야기하고 그러면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티비를 보게되면 았그래도 대화시간이 부족한데 티비를 봐버리면 아예 대화 시간이 없어져 버리니까 티비를 양보기르 약속을 해서 안보게 되니까 아빠도 못보는거예요 자연스럽게 애기를 하게 되고 놀아주게 되고 제가 책 읽어주라고 부탁하면 책 읽어주시고 그런 분위기로 변했다는 거. 대화 시간이 많아졌어요. 또 외식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가정 안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밖에서 식사하는 것이 더 불편해지는거예요.”(사례3-6-1)

### **(7) ‘꿈프’를 통해 변화된 생활양식 3 : 신앙양육 공동체로 나아가다.**

‘꿈프’의 경험은 무엇보다도 참가자들에게 가정에 대한 성경적 정체성을 확립시켜주었다. 참가자들은 이전 신앙과 가정은 별개의 것으로 이해하거나 가정 속에서 신앙생활을 구현하는 것을 막연한 바램으로만 생각하였다. 그러나 ‘꿈프’에 참가한 이후 가정과 신앙을 하나로 생각하게 되었고,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것이 정착되어갔다. 식탁 문화에 있어서도 가족이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대화를 통해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뒷정리까지도 함께함으로써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귀감이 되어 함께 참여하는 변화를 가능케 하였다. 참가자들의 가정에서 대화가 텔레비전을 대체하게 되었고, F5 활동이 일상이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이를 통해 이상 속에서도 신앙을 교육하는 것이 가능케 되었다.

“‘꿈프’는 저에게 어!~ 가정을 그리스도의 가정을 주었죠. 그전에는 그냥 가정이었다면, 나의 가정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시켜 준, 주었다고 말하고 싶어요.”(사례1-12-3)

“밥상머리 교육을 이야기해주고, 밥 먹을 때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 하더라는 교육을 애기 해주고 최대한 참석해달라고 애기를 했어요. 어차피 아빠는 먹는 밥이니까 와서 먹어주고, 처음에는 거의 아빠가 말을 안했었어요. 식사 시간에 하면서 저도 노력했고, 아이들도 자기들은 ‘꿈프’를 하는 것을 아니까 ‘꿈프’의 기적의 식탁은 이런 분위기여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거든요 엄마가 한번 씩 말을 꺼낼 때 그것을 인지하고 서로 애기를 할려고 하는 분위기에 아빠가 섞이다보니까 그게 좋은 것을 아는 거예요. 밥상에서 대화하는 기쁨을 아는 것 같아요 남편이..그래서 예전보다는 많이 참여 할려고 하고 그런 것 같아요”(사례3-5-4)

“거의 2년 되가 잦아요 거의 습관처럼 무릎성경 같은 경우에도 항상 그 시간에 아이들과 약속했던 시간에 못하더라도 좀 2-3일 미뤄서 해도 그게 지켜지는 거예요 안하면 이상한거.. 안하면 생각나고 이상한거.. 거의 가정예배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빼먹고 들었고, 빼 먹는 날은 그 주에 행사가 있었다던가 그런 거 외에는 거의 몸에 습관이 들어서 아이들도 알죠! ‘엄마 무릎성경 안했어! 무릎성경 안해?’ 하고 물어보죠! 계속했던 습관이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사례3-7-1)



## V. 및 제언

본 연구는 신앙양육 공동체로서 가정의 생활양식 변화 프로그램인 '꿈프' 참가자들의 경험이 어떠한지를 탐색한 다중 사례 연구이다. 연구자는 '꿈프' 참가자들의 경험을 탐색함으로써 '꿈프' 경험 전 가정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생활양식이 '꿈프'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신앙양육 공동체로서 가정의 생활양식 변화 프로그램인 “꿈프”의 효과와 그 요인들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먼저 '꿈프' 경험 전 가정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생활양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참가자들의 성장과정과 가족환경은 “대물림”이라고 형태로 가정에 대한 상을 정립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에 대한 “무지”는 양육자의 “일방통행식” 양육태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도에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중도 탈락한 경우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가정들이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욕구와 의지는 가지고 있으나 신앙 양육공동체로서 생활양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꿈프'에 참가한 가정들은 이러한 고민과 가정의 생활양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꿈프'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12주 동안 가정의 생활양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되었다.

'꿈프' 시행 초창기, 참가 가정들은 기존에 습관화된 생활양식과 새로운 생활양식의 충돌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양육자로서 부모들의 헌신적인 의지와 결단, 그리고 부모의 변화에 대한 자녀들의 긍정적 반응으로 인해 갈등이 해소되어갔다. '꿈프'가 진행되면서 각 가정들은 각 가정의 특성과 구성원들의 상황에 맞는 생활양식을 변형, 정착시켜가기에 이르렀다.

'꿈프'를 통해 제일 먼저 일어난 변화는 양육자들의 인식의 변화로 양육자들은 자신의 기질과 양육태도, 그리고 양육대상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반성적 성찰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 태도의 변화로 이어졌고, 교육 통해 인지되고 훈련된 대화방식을 통해 자녀들과 공감적 소통을 하고, 자녀들의 감정을 교감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자존감과 주체성이 강화시켜가게 되었다.

또한 '꿈프'를 통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경교육을 받은 자녀들은 성경적인 시각을 형성하게 되었고, 교회와 가정에서 일치된 모습을 보이는 부모의 신앙을 통해 말씀의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꿈프'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가정의 생활양식을 바꾸어 놓았다. 가족을 이르는 우리나라 말 중에 식구(食口)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한집에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하지만 현대시대와 같이 분주한 시대에 가족과 충분히 시간을 갖고 식사를 함께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러나 '꿈프'에 참여한 가정은 '꿈프' 12주 기간 동안 매일 한 끼 이상 가족 전체가 모여 기적의 밥상을 진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4가정 역시 현재도 가족 전체가 참여한 기적의 밥상을 매일 진행하고 있다. '꿈프'에 참여한 부모들은 공통적으로 '꿈프'를 통해, “가정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성경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성경적 생활양식을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앙양육 공동체로서 가정의 생활양식에 대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회와 가정이 연계된 새로운 양육패러다임을 만들어가야 한다. 기간 교회의 가정 사역은 여전히 교회 중심적이며, 사후약방문식의 치료적 접근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으로는 오늘날 제기되는 가정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세우신 기관으로 서로를 위해 존재하며, 서로의 존재이유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가정의 건강함 없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없고, 교회의 도움 없이 가정의 성경적 정체성을 세우기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교회와 가정의 각각 위상과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많은 영역에서 교회는 가정과 부모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결코 성경적이지도, 가정을 위한 일도 아니다. 교회와 가정은 성경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고, 그 토대 위에 교회의 사역과 가정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꿈프'는 교회와 가정이 연계한 새로운 양육패러다임의 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 결과에서 지적되는 것처럼, 참가한 가정의 부모들은 결혼 전 가정의 생활양식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전문적

인 지식이나 체계적인 훈련 없이 가정을 형성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육에 대한 무지는 부모들의 권위적이고 일방통행적인 양육방식과 아동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도현심, 2012).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는 '결혼 예비학교'와 같은 결혼을 앞둔 신앙인들이 가정에 대해서 사전에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나아가 훈련 참여를 강제 할 수 있는 교회 규정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가정과 교회,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가정의 문제는 결코 가정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문제로 확장된다. 또한 오늘날과 같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사회 속에서 교회가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현실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는 가정이나 교회보다는 학교와 학원을 포함한 지역사회이다. 또한 우리 가정들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지역사회에 그 원인이 있거나 그 해결방안을 지역사회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가정과 교회, 학교를 비롯한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를 통한 체계적이고 통전적인 양육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꿈포' 참가자들의 경험을 탐색하고, 그 경험을 질적 분석함으로써 신앙양육 공동체로서 가정의 생활양식을 제안하고, '꿈포' 생활양식의 경험이 참가자들의 인식과 태도, 생활양식의 변화에 미친 효과를 밝혔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충분히 연구되지 못한 교회와 가정이 연계된 형태의 양육모델을 제시하고, 기독교 가정의 생활양식을 제안한다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연구대상자의 수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모두 부모라는 점, 둘째 물량화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점 등이다.

가정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교회적인 문제로 확장되는 상황에서 교회와 가정이 연계된 형태의 다양한 통전적 양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신앙양육 공동체로서 가정의 생활양식을 정립하는데 학술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도현심 (2012). 『첫 부모 역할 책』. 서울: 지식채널.
- 유영주 (2012). 『가족복지론』. 서울: 대왕사.
- 은준관 (2007). 『기독교 교육 현장론』. 서울: 한들출판사.
- 주소영 (2011). 『부모가 자란다』. 서울: 도서출판 이파르.
- 정정숙 (2004). 『성경적 가정사역』. 서울: 베다니.
- 정현숙 (2012). 『가족생활교육』. 서울: 도서출판 신정.
- 지영택 (1999). 『교회 성숙을 위한 가정 사역』. 전주: 전주대학교 출판부.
- 존 가트맨, 최성애, 조벽 (2011).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 서울: 한국경제신문.
- 현용수 (2011). 『신앙의 명가 이렇게 세워라』. 서울: 웨마.
- 강경미 (2006). “기독교 상담과 아동기 정서발달 교육”. 『복음과 상담』, 6, 91-119.
- 김미애 (2008). “기독교 관점의 가족치료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 방안에 관한 연구”. 『복지상담학연구』, 3, 25-39.
- 김선아 (2010). “유아를 위한 교회와 가정을 연계하는 부모교육”. 『기독교문화연구』, 15, 223-249.
- 김성원 (2012). “다윈주의 시대의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제언”. 『기독교교육정보』, 33, 117-150.
- 김수정 (2012). “교회의 기독교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양육행동 및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회사회사업』, 20, 7-36.
- 김현자 (2007). “P.E.T.와 현실요법을 접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의 의사소통기술과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4, 95-121.
- 김혜자, 이성희 (2011). “유치원에서 자녀양육지원 프로그램 적용 효과”. 『어린이 문학교육연구』, 12, 277-295.
- 나장함 (2012). “교과교육과 수업 연구에서의 질적 접근: 질적연구 샘플링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53, 75-104.
- 박상진 (2009). “한국 교회 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독교교육논총』, 20, 53~83.
- 박진숙 (2004). “현대 기독교 가정의 특성과 기독교 가정교육론의 방향”. 『기독교와 교육』, 12, 58-75
- 백성재 (2010). “가정예배를 통한 기독교교육의 가치실현을 위한 연구”. 『신학지평』, 227-256.
- 송정아 (2001). “중년기 부부상담의 이야기 치료적 접근”.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 95-113
- 신승법 (2012). “부모의 관계적 기독교 영성과 그들의 자녀 양육 방식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30, 317-343.
- 신승법 (2013). “기독교교육의 장으로서의 가정의 재발견”. 『복음과 교육』, 14, 185-206.
- 이광복 (2005). “성경적 가정교육”. 『광신논단』, 14, 255-279.
- 이규민 (2013). “세계화 시대를 위한 기독교가정교육의 방향성”. 『기독교교육논총』, 33, 145-173.
- 이만식 (2006). “가족의 변화와 이혼에 관한 고찰”. 『장신논단』, 25, 293-318
- 이명흠 (1993).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본 한국의 가족치료 현황과 쟁점”.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 1-11.
- 이은규 (1998). “기독교 가정교육의 이해와 교회의 과제”. 『신학지평』, 7, 42-62.
- 이정관 (2012). “청소년 기독교 신앙교육을 위한 가정과 교회의 교육연계”. 『신학과 실천』, 31, 457-482.
- 이혜숙, 조혜진 (2009). “교회사회사업실천을 위한 기독교인의 개인상담과 가족상담 욕구에 관한 연구”. 『교회사회사업』, 10, 113-140.
- 장화선 (2001). “교회의 가정사역 프로그램 유형 연구”. 『신학지평』, 14, 81-107.
- 장화선 (2004). “교회교육을 통한 가정사역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신학지평』, 17, 29-57.
- 전요섭 (2013). “심리정서적 자기대화에 대한 이해와 기독교 상담방안”. 『복음과 상담』, 21, 255-291.
- 조정관, 함경애, 천성문. (2013).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메타분석”. 『재활심리 연구』, 20, 269-295.

- 한영진 (2004). “기독교 가정의 부모가 지각하는 자녀의 신앙생활 평가도구 개발 기초연구”, 『부모교육연구』 1(1), 5-23.
- 권오진 (2012). “성경적 가정 세우기”.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이현아 (2014). 밥상머리 교육이 우리 가정 아이들 살린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검색일](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검색일)  
2014. 5. 12)
- 이강이, 그레이스정, 이현아, 최인숙 (2013). “2012년 학부모의 자녀 교육 및 학교 참여 실태조사 연구”.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 지원과 218” (2012. 3. 6)
- 『SBS 스페셜 : 밥상머리의 작은기적』. 정갑수 연출. SBS. 대구. 2010. 7. 4.
- Charles M. Sell. (1981). *Family Ministry : The Enrichment of Family Life through the Church*. 양은순 역(1988).  
『가정사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 Horace Bushnell (1979). *Christian Nurture*. 김도일 역(2004). 『기독교적 영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 John W. Creswell (2010).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2nd  
ed). 조흥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역(2013). 『질적연구방법론 : 다섯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 Kerry pateck. (2003). *Family worship*. 김시완, 윤혜란 역(2003). 『아버지는 가정 목회자』. 서울:미션월드.
- Michael P. Nichols. (2011). *The Essentials of Family Therapy*. (5th ed). 김영애, 김정택, 심혜숙, 제석봉 역(2013).  
『가족치료: 핵심개념과 실제적용』. 서울: 시그마프레스.
- Reggie joiner. (2009). *Think Orange*. 김희수 역(2011). 『싱크 오렌지』. 서울: 디모데.
- Robert K. Yin. (2009). *Case Study Research : Design and Methods*. (4th ed). 신경식, 서아영 역(2011). 『사례연  
구방법』. 서울: 한경사.